



“爆彈論” 호주제 폐지와 仁倫之道 不貞의 所致

月 仁 李 昌 煥



(一) 天地에 順應

하늘과 땅 그리고 人間'

이것이 바로 宇宙를 잘 運營하는 求心體이다. 여기서 哲學이던 科學이건 自然의 法則과 人間의 倫理가 一致한 것을 모르는 者는 별로 없을 것이다. 天體의 順航하는 動態를 살펴보자.

太陽이 뜨면 밝다. 太陽이 지면 밤이다.

밤은 어둡다. 그러나 달이 뜨면 밝다. 天動과 번개가 치면 必然코 비가온다.

그러나 雨後風調가 때맞춰 順調로우면 人間은 豊足하여 잘 살지만 그렇지 않고 旱害와 風水災害로 많은 被害가 났다면 人間들은 右往左往하면서 安定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人間의 情神이 아니고 狂人에 가까운 行動을 한다고 하겠다.

지금 韓國社會가 반 미치광이로 살고 있음을 直感할 수 있다.

治政雜輩는 勿論이요 強盜賊과 殺人魔와 色狂들 그리고 誘拐와 拉致等 犯罪의 이름이 붙은 罪惡은 모두 韓國땅에서 自行되니 참으로 더러운 榮光이다.

全世界에서 一等인 나라가 韓國이니 말이다. 거기 덧붙이면 公職者들의 非理와 强者들의 搾取 權力者들의 橫暴等等 어찌 입으로 形言할 수 있겠는가

人間들의 本性은 일즉부터 좋은 點은 멀리하고 短點은 가까이하면서 빨리

배우고 빨리 行動하는 것이 特徵이다.

애기를 키워보면 말을 배울때는 반드시 辱부터 제일 먼저 배운다.

人間 그 自體는 聖惡을 지닌 妖物이다. 마음이 朝夕으로 變하는 장마날과 같아서 時時刻刻으로 變하는 人間의 마음이 善聖으로 發動할 때는 善行을 하고 惡한 心性이 發動할 때는 서슴없이 그 行動을 거리낌없이 行動으로 옮긴다. 그러나 完全하게 감추어지는 犯罪는 別로 없을 듯 하다.

人間이 惡으로 모은 財産은 惡으로 破産이 되고 善行으로 人間社會에 奉仕한 그 사람은 子子孫孫이 財産과 心身이 富裕大福하여 名譽와 權勢가 四海에 떨칠것이다. 왜그런가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서 善人의 業績을 報恩하니 그것이 因果應報인 것이다.

(二) 倫理는 人間之道

아무리 科學이 人間에게 便利한 生活을 도와준다고 하여도 그 價値를 알고 使用할 줄 알아야 그것이 過然 人間에게 必要한 資産이 된다는 것이다.

禽獸에게 金이나 玉으로 或은 다이아반지를 갖다 쥐도 한끼 먹을 수 있는 소죽만 못할 것이다.

우리는 全地球上 어떤 民族보다도 어떤 나라의 文化보다도 훨씬 偉大한 白衣民族임을 全地球村人間들이 모르는 者 하나도 없다.

祖上님은 子孫을 훌륭하게 길러서 父母님께 孝를 으뜸으로 삼았고 孝行 다음은 忠誠을 해야함을 어릴때부터 가르쳐 깊이 익히어서 國家에 爲國忠誠을 하였다.

어찌 그 뿐인가 벗과 벗사이에 信義를 지켜 生死를 나누는 그야말로 偉大한 民族임을 世界萬邦에 告하여 부끄럼없이 五千年을 살아온 民族이다.

■ “爆彈論” 호주제 폐지와 仁倫之道 不貞의 所致

그리고 夫婦는 有別이라 하여 아내는 시집올때 같이 온 親庭姓氏를 시집에 와서도 시집戶籍에 그대로 轉入시켰다가 死後에도 入棺埋禮 할 때까지도 親庭에서 받는 姓과 친정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간다. 그뿐이라 年年이 찾아오는 忌祭祀時에도 紙榜을 써서 神主로 되시고 祭祀를 지내 올린다. 大東方禮儀之國임을 어찌하여 모르고 우리나라 이 땅에 몇몇女人들은 그 고마움을 모르고 戶主制를 폐지하자느니 父의 八寸尺以上은 婚因을 하자느니 정말 人間의 外刑만 갖춘 禽獸가 아닌 以上 그런 妄言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단 말인가…….

不貞한 女人이 初婚에서 낳은 子息을 대리고 再婚한 집 男便앞으로 出生시킨다면 그 아이의 本姓은 默殺당하고 무럭무럭 커서 제 親아비를 찾을 때 그때의 改家한 不貞女人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여보라. 가슴 아프고 피가 터질 것이 아닌가. 俗談에 꼬감 빼어 먹듯이 우선 改家하여 새서방을 맞을 때는 氣分이 좋을지 모르지만 前시집 子息이 成長하여 제 親父를 가르쳐달라 그리고 제 本姓으로 되돌려 달라고 할 때는 하늘이 두쪽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왜 모르는가. 아무리 男便이 不良者요 殺人強盜라고 하여도 改過遷善시켜서 男便으로 和合하고 兩親父母님께 孝道하며 子息을 잘 길러서 後代의 榮光을 指向하는 任務를 責賃져야만이 韓國女性의 基本이요 이나라 傳統的 窈窕淑女의 表象이거니와 時代가 亡朝가 들어 20世紀後半에 와서는 西洋退敗文化가 流入되어 지면서 좋은 文化는 排斥하고 汚染된 低俗한 文化를 받아들여 實踐에 옮기는데 양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韓國에 몇몇 不貞한 女人과 家庭教育을 못 받은 不良靑少年들을 敎化하고 善導치 못한 그 責賃은 勿論 政府가 저야하지만 民主國家에서 個人의 自由를 앞세우는 沒知覺한 仁倫을 排擊한 者들의 所行은 정말로 目不忍見이 아닐 수 없다.

人間은 自己便宜主義만을 正言正行으로 誤認하는 者가 不知其數이니 너무도 淺薄하기 짝이 없다.

自身の義務를 핑계치고 權利만을 主張하는 人間쓰레기들은 韓대모아서 人間教育을 시켜야 한다.

우리 韓民族은 古代나 現代를 가리지 않고 人間本然의 倫理와 道德을 버리고서 살아온 民族이 아니었다.

“無汗不成”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들은 땀흘려지켰다. 古代社會로부터 現實社會로 進展하면서 한치의 過誤도 없이 天心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偉大한 民族이다. 地球村 어떤 種族도 흉내내지 못하는 三綱五倫을 배워 實踐하면서 살아온 거룩한 國家이다. 어쩌다가 不貞한 種子가 쌀속(白米)에 액미같이 섞여 오늘날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단 말인가…….

五千年 지나긴 歷史속에 仁義와 禮知와 信으로 살아 왔으며 또 그것을 子孫萬代에 이르기 까지 가르쳐서 보배로 간직하고 살게 할 것이다.

三綱과 五倫과 陰陽과 五行 등은 天地人의 三位一體의 永存하는 生의 한치도 바꿀 수 없는 哲則이기 때문에 잊어버려거나 버려서도 안되는 人體의 五臟과도 똑같은 理置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人間이 살아가는 길이 바로 倫理가 人間之道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三) 近親婚因이니 戶主制廢止는 禁物이다.

어떤 나라에 가서 배워왔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사는 方法과 牛馬狗獸가 사는 理置가 다르듯이 民族과 民族間에 歷史가 다르고 生活과 儀式이 다를진데 우리 韓民族 몸에 맞지도 않는 服禮와 風習을 고쳐가자고 하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송늬를 찾는거나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

남에 나라의 것이라도 우리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있으니 좋은 것은 배워와서 우리것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은 아예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 나라에 충성하는 길임을 알아야 하겠다.

■ “爆彈論” 호주제 폐지와 仁倫之道 不貞의 所致

못된 人間쓰레기들은 正反對로 좋은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보기가 바쁘게 배워와서 집안과 이웃과 온나라에 흘려보내어서 騷亂을 일으키는 것은 逆賊이나 悖倫兒가 하는 행동이지 옳고 바른사람의 짓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政府는 몇몇 不貞女人네들이 호주제폐지요청을 받아 동조하는 것은 당리와 득표에 목적을 바라는 것이지 나라가 망하는 패륜을 생각지 않는 52명의 국회의원을 추방해야 할 것이다.

우 일천만 儒林들은 활복자살을 할지언정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 오천년 고귀한 역사를 더럽히는 망국 행동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근친혼 호주제 폐지는 하늘을 두고 맹서하니 불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쫓기한다.

一千萬 儒林代表들이 約萬五千餘名이 몰려가 (03年 4月 29日)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文化마당에서 蹶起大會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時間에 쫓기는 農繁期에 그 많은 人力을 首都한 가운데로 集中시키는데 車輛이며 기름하고 食代며 그 얼마나 民弊를 끼쳤는가 몇몇 不貞女 德分에 國民이 입은 莫大한 損害는 누가 報償할 것인가. 國家에 利益은 못될망정 나라가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엄청나도 높은 곳에 계시는 高級대감님들은 강건너 물구경하시는 處事는 쓸개와 간이 터져 피가 평평 쏟아질 지경이다.

높은신 國會議員님께서 50名이나 그 좋은 不貞女들의 請託에 同調하시고 記名捺印하시었다고요! 女人들의 標가 意識되신 모양이군요. 추접하고 더러운 野望을 버리시고 民族自存의 크나큰 熾불을 兩손에 들고 大義를 爲하여 行進하시면 어떨까요. 千世萬世後에 그대들의 이름 三字가 금빛 뺨지보다 더 큰 榮光이 子孫萬代에 빛날 것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 一千萬 儒林이 죽는날 이 나라는 禽獸들의 天國이 되어 人肉市場이 開設될 것이고 兄弟 三寸 姨從四寸 親四寸 男妹 따위가 默殺되고 한아버지가 10兄弟를 낳았어도 各各姓이 다른 戶主이니 數年後에 客地에서 만나도 他人

으로 婚因할 것이고 馬拘間 망아지도 四寸끼리 交配를 앓는데 人間이 망아지 만도 못하다면 어찌 “天地之間 萬物之中에 唯人이 最貴”라고 할 것인지 정말 疑問이 아닐 수 없다.

人間이 人間으로서 사는 길은 三綱五倫만이 眞實로 지킬때 하늘은 人間을 도울것이며 萬類의 生命이 和樂萬堂하여 永存 또 永世不滅의 生存이 可能할 것이다.

한국에 여성이여 요조숙녀로 살아주시구려…….

2003年 6月

(慶北英陽 健一堂)

